

## 부부간의 사상체질 분포

김달래, 김선형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사상체질의학과

###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Difference between Married Men & Women

Dal-Rae Kim, Sun-Hyung Kim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East west neo medical center,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distribution of married couples' *Sasang* constitutions.

**Method:** This study was researched clinically using medical records of 206 married couples who visited the Kyung Hee University East-West neo medical center in Seoul between May of 2006 and June of 2008.

**Results:**

1. When a man is *So-yangin*, his wife's *Sasang* constitutional type is *So-yangin* 7.7%, *Tae-eumin* 53.8%, *So-eumin* 38.5%. A *Tae-eumin* wife is significantly more common than the other two groups.
2. When a man is *Tae-eumin*, his wife's *Sasang* constitutional type is *Tae-yangin* 0.9%, *So-yangin* 53.9%, *Tae-eumin* 8.7%, *So-eumin* 36.5%. Proportion of *So-yangin* wif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 three groups.
3. When a man is *So-eumin*, his wife's *Sasang* constitutional type is *So-yangin* 61.5%, *Tae-eumin* 29.2%, *So-eumin* 9.2%. A *So-yangin* wife is found at a significantly higher rate than the other two groups.

**Conclusion:** A *So-yangin* man is most likely to marry a *Tae-eumin* woman. A *Tae-eumin* man is most likely to marry a *So-yangin* woman. A *So-eumin* man is most likely to marry a *So-yangin* woman.

**Key Words :** Marriag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yin-yang

### 서론

사상체질의학은 동무이제마에 의해서 창시된 의학으로 성정, 체형, 병증을 중심으로 사람을 구별한다. 성정은 사람의 성격을 포함하며 체형은 외모 및 움직임 병증은 그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병리적 생리적 약리적 반응을 말한다. 즉 체질로 사람을 구별하여 나눈다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부부는 한의학의 기본개념인 음양의 대표적인 예이다<sup>2)</sup>.

사상체질의학은 음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으로 완성되는 학문이다. 음양을 현실에서 가장 잘 대별하는 것이 부부이다. 즉 성격적 육체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음양에 있어서 부부는 육체적 정신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해서 서로 반대인 것도 나타내지만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동류인 것도 나타낸다. 두 부부는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부의 체질은 남녀가 같을 경우가 많은 것인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인지 또한 어떠한

• Received : 2 February 2009

• Revised : 15 May 2009

• Accepted : 25 May 2009

• Correspondence to : 김선형(Sun-Hyung Kim)

(134-727)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49번지 경희동서신의학병원 체질개선크리닉

Tel : +82-2-440-6252, Fax : +82-2-440-7143, E-mail : peaceful-sea@hanmail.net

결혼이 더 바람직한지 의문을 갖게 된다.

사회심리학적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유사한 태도를 보일 때 더 많은 호감도를 표시하며, 데이트 상대나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도 심리적으로 유사한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sup>3,4)</sup>. 또한 결혼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sup>5,6)</sup>, 부부간 MBTI 각 척도의 연속점수의 차이가 적을수록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도가 유의성 있게 높았다<sup>7,8)</sup>.

반면 성격유형검사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유형에 매혹되는 현상이 있다는 내용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유사한 사람에게 호감을 나타내지만 신장이나 체중과 같은 신체적 특성은 유사한 사람을 선호하지만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이처럼 사람은 서로의 유사한 면에 이끌리기도 하고 반대 적인 면에 이끌리기도 한다.

한의학이나 사상의학에서는 아직 부부간의 체질에 대해서 통계를 낸 것은 없다. 그렇다면 부부간에 체질분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부부는 서로 같은 체질이 많을까 다른 체질이 많을까. 본인은 임상에서 여러 부부를 진단 치료하면 함께하는 부부의 체질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경희동서신의학병원에 2006년부터 2008년도 까지 내원한 총 206쌍의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체질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에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본 론

### 1. 연구대상자

2006년 5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경희

동서신의학병원의 체질개선 클리닉과 건강증진센터에서 진단 치료를 받은 부부 206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체질의 감별은 사상체질전문의를 의해서 이루어졌다.

### 2. 연구방법

대상자의 체질감별은 음성분석기와 체질의학과 전문의의 사진(四診)으로 이루어 졌으며, 부부 관계는 본인들의 진술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통계처리는 본 통계처리는 SPSS 12 for win을 이용하여 교차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1) 性別 및 年齡의 분포

남자는 소양인 26명 태음인 115명 소음인 65명으로 평균 연령대는 49.15세 였다. 여자는 태양인 1명 소양인 104명 태음인 43명 소음인 65명으로 평균 연령대는 41.35세 였다. 전체적으로는 태양인 1명 소양인 130명 태음인 158명 소음인 123명으로 총 206쌍 412명에 관해서 연구가 이루어 졌다(Table. 1).

#### 2) 부부별 체질 분포

##### (1) 남편이 소양인 일 때 부인의 체질 분포

남편이 소양인일 경우 부인이 소양인인 비율 7.7%, 태음인인 비율 53.8%, 소음인인 비율 38.5%로 부인이 태음인일 비율이 유의성 있게 높았다.

##### (2) 남편이 태음인 일 때 부인의 체질 분포

남편이 태음인일 경우 부인이 태양인일 비율 0.9%, 소양인일 비율 53.9%, 태음인인 비율 8.7% 소음인인 비율 36.5%로 부인이 태음인일 비율이

Table 1. Patients' Sasang constitutional

	sasang		constitutional		Age (year)	Total (number)
	Tea-yanjin	So-yanjin	Tae-eumin	So-eumin		
male		26	115	65	49.15	206
female	1	104	43	58	41.35	206
total	1	130	158	123		412

**Table 2.** The distribution of the Sasang constitution in Research subjects

		woman's sasasang conconstitutional (number %)				Total (number, %)
		Tea-yingin	So-yingin	Tae-eumin	So-eumin	
man's sasasang conconstitutional (number %)	So-yingin	0 (0.0%)	2 (7.7%)	14 (53.8%)	10 (38.5%)	26 (100%)
	Tae-eumin	1 (0.9%)	62 (53.9%)	10 (8.7%)	42 (36.5%)	115 (100%)
	So-eumin	0 (0.0%)	40 (61.5%)	19 (29.2%)	6 (9.2%)	65 (100%)
total		1	104	43	58	206(100%)

유의성 있게 높았다.

(3)남편이 소음인일 경우 부인이 소양인일 비율 61.59%, 태음인인 비율 29.2%, 소음인인 비율 9.2% 로 부인이 소양인일 비율이 유의성 있게 높았다.

부부별 체질 분포는 아래와 같다(Table. 2).

### 고 찰

사상의학에서 체질을 구별하는 것은 성정, 체형 및 체형기상, 병증으로 이중 앞의 두 가지는 사람의 성격과 육체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부부는 음양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다. 음양이 화합하지 않으면 도(道)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하여 남녀의 음양으로 자식을 낳아서 기른 것을 표현하고 있다<sup>2)</sup>.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성정, 체형, 병증을 중심으로 사람을 구별한다. 즉 체질이 유사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인 면이 유사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에서 성정은 특히 그 사람의 성격의 특징을 많이 반영하며 체형과 병증은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과 움직임 음성등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즉 체질이 같다는 것은 성격적 신체적 특징이 유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2006년 5월부터 2008년6월까지 경희동서신의학병원 사상체질의학과에서 진단 치료를 받은 206쌍의 부부 총 41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본다면 남편이 소양인일 경우 부인이 태음인인 비율 53.8% 소음인인 비율 38.5% 소양인인 비율 7.7% 로 부인이 태음인인 비율이 유의성 있게 높았다. 또한 남편이 태음인일 경우 부인이 소양인일 비율 53.9% 소음인인 비율 36.5% 태음인인 비율 8.7% 태양인일 비율 0.9%로 부인이 소양인일 비율이 유의성 있게 높았다. 또한 남편이 소음인일 경우 부인이 소양인일 비율 61.59% 태음인인 비율 29.2% 소음인인 비율 9.2% 로 부인이 소양인일 비율이 유의성 있게 높았다. 즉 서로 같은 체질끼리 결혼할 비율은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유의성 있게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남녀는 상대방을 선택할 때 체질적으로는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같은 체질 안에서도 표리병은 나누어진다. 이처럼 체질적인 특징은 육체적 병리적인 차이를 좀 더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을 뿐이지 극단적인 외향이나 내성, 체격의 크기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발표된 연구에서 주로 성격 조건 환경적인 요인을 다루었던 것에 비해서 체질적인 특징은 육체적 병리적인 차이를 좀 더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체질이 같다는 것은 성향이 같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체질마다 표리병이 존재하는 것은 소음인의 울광증 망양증, 태음인의 간조열증, 소양인의 흥격열증에서 처럼 변증에서 양(陽)적인 부분을 많이 호소하는 체질일수록 성격이나 움직임이 활발하며 그 반대

일수록 즉 음적인 부분을 많이 호소할수록 성격이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것에서 같은 체질이 완전히 같은 성향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음중에 양이 있고 양중에 음이 있듯이 부부의 체질이 서로 다른 것이 많은 것은 성격에서 뿐만 아니라 외모 병증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또한 성격상 외향적인 사람들은 좀 더 내성적인 사람을 체형 상 골격이 좋고 근육이 발달한 사람들은 골격이 작고 마른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만은 분명하다<sup>9,10</sup>.

이처럼 음과 양 안에서 다시 음과 양이 나누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다.

이처럼 서로 다른 체질이 결혼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높은 것은 부부는 음양이기 때문이다. 서로 이끌리거나 호감을 느끼기 그것을 유지 하는 힘 또는 서로에게 반감을 가직 되는 계기 또한 여기 있다고 하겠다.

궁합에서도 이상적인 조합은 서로 다른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동시에 서로의 성향이나 이상향이 같은 것을 기본으로 한다. 즉 서로에게 없는 오행의 글자가 많은 것이 좋으며 또한 조후라고 하여 두 사주의 온도 즉 남녀의 음양오행의 화평한 기운(한난 조습)에서 부족한 기운을 채워 주는 것 많을 수로 좋다고 본다. 사주를 합해 놓았을 때 서로의 음양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격국 용신과 공망처럼 그 사람의 격이나 이상향 등이 서로 같을수록 좋다고 본다<sup>11</sup>. 즉 동양학에서도 음양이 설명하듯 이상적인 부부는 서로 반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같은 곳에 뿌리를 두거나 같은 곳을 향하는 것을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즉 서로 반대인 스타일에 매력을 느끼기는 하지만 심리적 유사성이 강해도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결혼생활의 만족도는 유사성이 비슷할 수록, 관심사가 같을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6</sup>. 사회심리학적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성격유형검사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유형에 매혹되는 현상이 있다는 내용

이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심리적으로 유사한 사람에게 호감을 나타내지만 신장이나 체중과 같은 신체적 특징에서는 유사한 것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특징은 서로 다르거나 선호하는 공통적인 유형이 있다는 뜻이다<sup>9,10</sup>.

또한 서로 같은 성향인 것을 좋아한다. 즉 사람들은 상대방이 유사한 태도를 보일 때 더 많은 호감도를 표시하며, 데이트 상대나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도 심리적으로 유사한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실제로 결혼한 부부들은 교육수준, 지능, 가치관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서 부부간 상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sup>3-6</sup>.

또한 결혼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부부간 MBTI 각 척도의 연속점수의 차이가 적을수록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도가 유의성 있게 높았다<sup>3-6</sup>. 성격유형검사는 사람의 특성을 16가지로 나눈 것으로 내성적-외향적, 감각적-직관적, 에너지의 방향, 인식의 기능, 판단의 기능, 생활양식으로 사람의 성향을 구별한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서로의 유사한 면에 이끌리기도 하고 반대 적인 면에 이끌리기도 한다.

즉 부부의 성향이 유사 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의학에서는 영추에 나오는 음양은 대대이며 상호보완적이라는 말로 부부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sup>12</sup>.

이후 부부체질별 만족도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체질별 결혼에 대해서 향후 연구를 지속하려고 한다.

### 결론

2006년 2월부터 2008년5월 까지 경희동서신의학 병원에 내원한 부부 206쌍 총 41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1. 남편이 소양인인 경우 부인이 태음인인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2. 남편이 태음인인 경우 부인이 소양인인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3. 남편이 소음인인 경우 부인이 소양인인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4. 부부간에는 서로 다른 체질별로 결혼하는 확률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 각각 서로 다른 체질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배제된 것으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체질간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도 지속하려고 한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차세대기술개발사업 중 지능형 한방 콘텐츠 개발(10028438)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 졌음.

### 참고문헌

1. Ko BH, Ku DM, Kim KY, Kim DR, Park SS, Song IB etal. *Sasang* Medicine. jipmoondang. Seoul. 2005:418.
2. Kim SJ. Daesan. The book of changes -the second volume . Daeyuhakdang. Seoul. 2001:89-105.
3. Ko JH, Kim MY. The Relations among Personality Similarity, Reciprocity, Understanding and Liking in Adolescent Pairs. Korea Youth Consulting institute. 2004;12(1):53-64.
4. Jo HD, Jang KY. Korean College Students' Evaluation of Self, Partner, and Preferred Types in Love Relationships Using MALP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7;20(1):39-54.
5. Ko JH, Paek YH. The effects of self and Spouse's Self-seteem, Communication Pattern, and Conflict Coping Behaviors on Marital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5;19(1):65-83.
6. Acitelli LK, Kenny DA. The importance of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of partners' marital ideals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2001;8:167-185.
7. Yun HK, Lee SH. The relationships among spouse's similarity of MBTI psychological types and marital communicatio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of sychological type. 2000;7:1-21.
8. Keirsey D, Marilyn B. My style and My face. Institute of psychological tests. Seoul. 1999.
9. Ko JH, Jun MJ. The Relation between Spouse Simila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An Analysis on Profile Similarity.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3;17(3): 1-16.
10. Kim DR. The interesting story of *Sasang* Constitution. Central life cycle. Seoul. 2002:232-240.
11. Baek YG. Sajujuungsul. Myeongmundang Seoul. 1996:182-189.
12. Hirsh S, Kummerow J. The type of personality type and life. Korea Institute of psychological tests. 1997.